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4.5.(수) 11:00~12:15
- 장 소 :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 참석자 : 심사위원회 위원 6명(1명 불참)
 - 위원 : 김경란, 김목순, 김보민, 임봉구, 신경원, 이혜승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선언 및 회의 진행 안내>

▶ 임시위원장

안건 1) 위원장 선출 : ***위원

(신임위원장 진행)

▶ 위원장

안건 2) 부위원장 선출 : ***위원

안건 3)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안 상정

▶ 의정팀장 : 심사위원회 및 심사에 대한 설명

▶ 대표의원 :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

바쁘신 중에도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실·겸손의 진실한 의회” 라는 슬로건 아래 2022년 7월부터 제9대 군포시의회가 시작 되었으며, 저희 의원들은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은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의정 및 시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는 2023년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스페인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이길호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6명으로 총 1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에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후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등이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 시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없어 도시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정역세권과 군포역세권 뉴타운의 지구 해제 이후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노후되거나 불량 주택의 증가로 협소한 주거공간과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택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군포시는 산본천 복원사업을 통해 콘크리트 구조물로 복개수된 산본천 옛 물길을 복원하여 친수공간을 활용한 문화, 경제 활성화로 원도심 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의 개발사업, 문화유산 등을 통한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를 시찰함으로써 향후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산본천 복원사업 등에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접목하고자 합니다.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 경기장을 철거하고 녹색 파사드 공원을 건설한 해외 사례를 시찰하여 우리 시 산본천 복원사업에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생태복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마타데로 아트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협오·기피시설, 유휴공간을 문화 콘텐츠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시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개발방향 착안 사항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가치에 대한 늦은 관심으로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알바이신 역사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이 살고 있는 정주형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와 충돌이 발생했던 만큼 문제점 극복 방안을 벤치마킹 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스페인 한국문화원 방문을 통해 한국의 대표 문화와 전통문화 콘텐츠, 경기도 문화를 포함한 한국 관광자원 등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산업 및 예술 분야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 그림책꿈마루 및 도서관 등 문화사업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며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22@바르셀로나 지구의 Zero Energy 빌딩 방문과 마드리드 물공급 관리소의 수도공급 시스템을 통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경기에코마을 및 상하수도 정비 사업에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페인 지방 주의회 방문 교류를 통해 우리시 의회와의 운영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며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사례 수집을 통해 의회운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방문일정 및 방문국 기본현황과 주요 견학시설 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례 회의를 통해 연수일정 관련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하였으며 산본천 복원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2월부터 실시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및 연수주제 연구를 위해 <스페인 문화의 이해>, <세계속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등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연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중 계획된 현장과 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습득하고자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알바이신 역사지구, 마타데로 마드리드에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금번 연수 경비는 약 4천3백9십칠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박 9일간의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스페인의 선진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개발사업, 문화유산 등을 통한 다양한 도시 재생 사례를 시찰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접목방안을 모색하고 의원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국외여비 설명

공무 국외 연수여비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는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경비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라 일비, 식비, 숙박비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숙박비는 인사혁신처 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의 85%의 할인정액으로 적용했습니다. 준비금은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항목이며 여행자보험 가입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결과는 의장의 경우, 여비 산출내역은 3,701,070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므로 3백5십만원으로 집행하게 되며 의원 및 직원의 경우는 1인당 3,356,270원입니다. 이상 국외여비 산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

▶ ***위원장 :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 ○○○위원 : 왜 스페인으로 정했는지 궁금함.

▶ 대표의원 : 다섯 차례 의원님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함.

현재 군포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 중 구도심의 개발 사업, 금정역, 군포역세권 사업, 산본천 복원, 문화도시 등 그런 것에 대한 해외 성공사례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검토 했을 때 스페인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도출되었음.

▶ □□□위원

일단 먼저 불임1에 보면은요 공무 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보면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이 있음.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가 이미 확인이 되었는지?

▶ 의정팀장

대행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며, 이미 스페인을 다녀온 다른 지자체에도 문의하여 확인했음. 문제없음.

▶ □□□위원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임. 공무상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임.

▶ 의정팀장

구두사항으로 확인을 했으며 정확한 자료를 한 달 안에 준비하도록 하겠음.

▶ □□□위원

현지 활동과 관련 교통수단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되었는지?

▶ 의정팀장

버스 임차는 완료하였고 버스 비용이 있기 때문에 국외출장여비 중에서 일비를 50% 감액한 상태임.

▶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심사기준에 준해 가지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건가?

▶ 의정팀장

심사 기준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가이드라인 자료임.

▶ □□□위원

조금 몇 가지 궁금한 거 ***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출장 목적이 스페인 친환경 도시 정책하고 도시재생 사례 비교 시찰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의사 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스페인 어느 도시의 친환경 도시 정책하고 도시재생 사례를 시찰하고자 하는 것인지?

▶ 대표의원

우리 방문 일정에 보시면 바로셀로나 22지구와 친환경 에너지 빌딩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손 뽑히는 신재생에너지가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공급 관리소 방문을 통해 사업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임. 또한, 앞에서 제안설명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철거되었던 경기장을 새롭게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생태 복원하여 가치를 높였던 그런 사례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산본천 복원 등에 대해 참고 자료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임. 마테데로 마드리드 지구를 방문해서 혐오 시설과 기피하는 시설물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로 개발한 사례가 있음. 이런 사례들을 활용해서 저희 구도심이라든가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이 개발할 때 이런 사례들들과 모습들도 같이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함.

▶ □□□위원

제가 의원이지만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 공무 연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정말 외부에서 보는 진짜 여행이

되지 않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가는 그런 공무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날짜별로 궁금한 거는 좀 문의하도록 하겠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물관리 부분은 의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 대표의원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사실상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기장 활용이라든가 개발지구라든가 이런 곳들은 연관성이 있음.

▶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의 물관리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개인 의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 의정팀장

마드리드 시 산하기관에서 하는 걸로 확인했음.

▶ ***위원장

참고로 유럽은 우리나라하고 물관리 정책 제도가 다름.

▶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연 이 여행에 이 부분이 꼭 방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증이 생김.

▶ □□□위원

2일차를 보면은요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과 구엘 공원은 어떤 내용을 견학하고자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의정팀장

두바이를 경유해서 2일 차에 스페인에 도착을 하게 됨.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장시찰이나 기관 방문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으며 시차 적응도 어려워 2일차는 바로셀로나 문화탐방으로 계획함.

▶ □□□위원

그러니까 그 성당 여기는 관광지이지 않은가?

▶ 의정팀장

2일차는 일정상 저희가 문화탐방으로 계획을 함.

▶ □□□위원

두바이공항 도착이 04시 25분임. 4시간의 팀이 있음. 출발하는 시간까지 4시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의정팀장

4시간을 따로 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대기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음.

- ▶ □□□위원
그러면 공항에서 그냥 4시간을 체류하고 있는 것인지?
- ▶ 대표의원
원래는 직항을 이용을 하려고 했으나 항공기 비용이 훨씬 더 비쌌. 좀 힘들더라도 저희가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경유하는 걸 선택을 함. 그래서 4시간 정도는 의원님들께서도 그전에 힘들어도 대기했다가 경유하는 걸로 일정을 결정함.
- ▶ □□□위원
4일차 방문 기관인 안달루시아 주의회와 방문 협의를 완료한 것인가?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것인가?
- ▶ 의정팀장
공문은 발송되었고 회신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음.
- ▶ □□□위원
공문을 받지 않는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방문지로 어떻게 선정이 가능한 것인지?
- ▶ 의정팀장
구두상 완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메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지가 않으면 자꾸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문이 오고가야지만이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는 것임. 그런데 이게 공문이 없는데 그쪽에서 그럼 과연 우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구두상으로 한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할건지?
- ▶ 의정팀장
해외 연수 이번에 연수 추진하다 보니까 유럽에 기관 방문하는 게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님. 저희처럼 공문을 받고 빨리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기간들이 좀 오래 걸림.
- ▶ □□□위원
그래서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에는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려면 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임. 6개월의 기간을 거치지 않는 이런 행선지라든지 이런 거에 다음에는 참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 의정팀장
참고하도록 하겠음.
- ▶ □□□위원
안달루시아 주의회에서 우수시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우수시책이 뭐가 있는지?

- ▶ 의정팀장
저희 시의회와 안달루시아주 주의회와 운영 방식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음.
- ▶ □□□ 위원
주의회하고 어떤 걸 비교하신다는 말씀이신지?
- ▶ 의정팀장
저희는 전문위원이라든가 정책 지원관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쪽 주의회에서도 그런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주의회와 운영을 비교 시찰해 보고 싶음.
- ▶ □□□ 위원
만약에 이제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내일이라도 그쪽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현지에 갔는데 만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건지?
- ▶ 의정팀장
연수 가기 전에 지금 한 달 정도 기한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확인을 하도록 하겠음.
- ▶ ○○○○위원
의회에서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물것인지? 1시간 반정도?
- ▶ 의정팀장
2시간 정도 예상됨.
- ▶ □□□ 위원
두 가지만 더 제가 궁금 사항 말씀드릴.
알바이신 역사 지구를 방문해서 문화 탐방 관광도시 재생 현장 견학을 계획하고 있음.
도시는 또 도시재생 개발 사례가 뭐가 있는지? 도시 재생 개발 선진지인가요?
- ▶ 의정팀장
이곳도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꼽히는 곳임. 참고자료 10페이지에 자료가 있음.
신구도심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례임. 연수일정에 저희가 안달루시아 주의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알바이신 역사지구 도시재생을 조사한 바로는 여기 주의회도 같이 협의해서 알바이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의회를 방문했을 때 연계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좀 갖고자 함.
- ▶ □□□ 위원
8일 차도 마찬가지로 마타데로 마드리드와 칼데론 경기장 현장 견학을 계획하고 있음.
여기도 무슨 도시재생 개발 사례가 있는지?
- ▶ 의정팀장
칼데론 경기장은 유명한 경기장인데 이미 철거가 되었음. 철거가 된 이후에 다른 건물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한 것임. 그래서 그런 이유, 과정과 또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함. 저희시 산본천복원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또한, 해외연수 관련해서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곳을 현장 시찰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음.

▶ □□□위원

의원님께서 방문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배워보는 거는 좋은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나서 느끼는거는 뭐냐 하면 조금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

그리고 과연 우리 군포시의회가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우리 도시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 이제 우리가 필요한 출장에 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보고서로 완벽하게 좀 제출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음.

▶ ***위원장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함.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전체적으로 출장 일정을 살펴보면 개발 위주의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 3페이지 보면 행정지원행정복지위원이 스페인 문화복지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복지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무한 상황임.

전체적으로 다 개발 위주로 마치 행정 관료가 벤치마킹하러 가는 듯한 인상을 받음.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개발 관광지를 방문하는 듯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왜 복지에 관련된 정책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

▶ 의정팀장

문화원은 방문을 하는데 복지 기관 방문이나 현장 시찰하는 곳은 없음.

▶ △△△위원

그러면 계획서에서 복지 정책은 빼야된다고 생각함.

▶ 의정팀장

수정하겠음.

▶ □□□위원

제가 위원님들 조금 도움 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알바이신 방문은 지금 팀장님이 설명이 부족했음. 그곳은 그라나다 성당 반대편에 있는데 사실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토굴처럼 돼 있는 곳임. 사실 지금 현실을 말하자면 그런 거를 다 없애고 새로운 것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더 보기 좋은 곳으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범지역이었던 곳을 그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없애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사실은 예전에 거기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을 와도 그쪽 지역은 잘 가지 않았음. 성당 길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그곳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것을 찾아낸 곳이니까 연수자 여러분들이 가서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음.

그리고 비센테 칼데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페인의 축구 경기장에서 레알마드리드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반대편 축구 팀에서 운영하던 사용하던 경기장이었음.

우리나라로 치면 외곽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택가와도 가까운 그런 축구장이었는데 그곳을 없애면서 굉장히 의견이 많았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또 금싸라기 같은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더 활용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걸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한 곳임. 지금 군포도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건물만 다 올리고 아파트만 짓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산본천복원을 해서 뭐가 남게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이번에 연수를 가지게 되면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음. 아까 마타데로는 사실은 소를 잡는 그런 장소였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장소였는데 그 건물을 다 없애고 거기에도 정말 현대식 건물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 문화유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과 거기가 굉장히 예뻐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적인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들의 작품들을 그곳에 전시하고 혐오 시설에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시설로 바뀐 좋은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서서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음. 위원님들이 사실 여기 자료에 설명해 놓은 것만 보시면 장소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 제가 죄송한데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렸음.

▶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계획할 때 지향점 목표를 어디에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계획했던 거는 어떤 공간 위주의 어떤 콘텐츠 없이 접근하는 것들이 보여짐. 설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살지 못해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설명은 안 되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연수가 마치 그냥 시찰하는 듯한, 스캔하는 듯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닌 듯한, 마치 여행사가 이런 일정을 꾸며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게 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듯 뚜렷한 목표가 설정이 안됨.

미리 준비를 해서 공문도 받고 그런 계획하에 그렇다면 여기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연구 모임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여기에서 벤치마킹 할 것인가 뚜렷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이상 그냥 저는 스캔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이 듭.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는 도시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음.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저는 심사위원으로 굉장히 우려가 됨.

▶ ●●●위원

지금 주요 질문 기관별 방문별 주요 질문 보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이 인터넷이나 문화원 또는 단순하게 공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질문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 듯이 의회에서 사전에 의원 연수 방문 목적과 필요성을 좀 더 충분히 부합하게 제대로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명확히 하셔서 이걸 사전에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저희가 정말 국외 연수를 갔다왔을 때 뭔가 제대로 남고 보고서가 제대로 저희가 지금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바에 부합하게 제대로 질의하시는 바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지 좀 걱정이 됨. 이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정팀장

사실상 현장이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전 조사만으로 하는 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 저희가 기관 방문을 하고 현장을 시찰했을 때 현장에서 분명히

오기전과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 다른 궁금한 질문들이 생길 것 같음.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 달 동안 더 준비하도록 하겠음.

▶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1분만 말씀드립니다. 유럽은 특히나 기관을 방문할 때는 그 기간 소요
기간이 필요함. 바로 지금 메일 보낸다고 해서 피드백이 오고 이런 게 아님.
수개월이 지나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요번에 간과된 점은 좀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생각함. 앞으로 이제 공무 연수나 국외 출장을 갈 때 그 부분은 좀 미리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음.

▶ 의정팀장

앞으로 참고하겠음.

▶ ○○○위원

산본천 복원이나 금정역세권, 군포역 개발에 대해 일반 시민분들은 사실 되게 부딪히는
문제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음. 그런데 이 스페인을 왜 제가 궁금해했냐면은 왜 스페인
이었나 했는데 위원님이 대답하시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음. 그냥 다 부시고 새로 짓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 중에 한 명인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주는 공간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고 오셔서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앞으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산본천 복원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음. 그런 연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음.

▶ ***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으니 연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연수를 가시되
충분히 보완을 해서 가셔야 함. 연수지를 유럽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스페인이야 스페인은
몇 포인트밖에 안 됨.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목적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 그리고 기관 방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기관이 아님. 여기 보면
공단, 공원, 지구는 기관이 아님. 그래서 이곳 표현을 우리가 심사기준에 하루에 한
기관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기관 플러스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장이라든지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가족성당과 구엘 공원 말씀
하셨는데 구엘 공원은 가 보이는 것만해도 굉장히 큰 자료, 도움이 됨. 그래서 성가족
성당 그 옆에 있으니까 가시더라도 구엘공원에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
그리고 지금 가는 날이 스페인은 축제의 나라임. 매일 축제가 열리는 나라로 그때도
분명히 축제가 열린다는 것임. 제가 아는 지식에는 4월 중순에 성 노동자 농부를 위한
축제가 있음. 그래서 그곳이 끝나면 바로 추카오 축제 그것이 시발점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아까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화를 축제로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느냐 진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
그리고 아까 산본천 복원하고 금정역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마드리드 같은 데는
하천이 있는데 마드리드 주변의 하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있는
상가 중심으로 보시면 앞으로 산본천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 어떻게
구상하고 조성하는 것이 좋은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접근을 하고 행동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보기 좋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어차피 시에 연수내용을
활용해야 하는데 연수자 중 시청 직원이 하나도 없는 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셔서 알차게 갔다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

▶ △△△위원

이 회의록이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지?

▶ 의정팀장

공개됨.

▶ 의정팀장

심사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평가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람.

▶ ***위원장

집계가 되어 심사 결과를 발표함.

심사 결과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군포시 의원 공무국외 출장계획
심사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함.